

# 국제금융시장 7월 동향 및 8월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
심 한 용 (hyshim@kdb.co.kr)

박 지 혜 (jh5702@kdb.co.kr)

- ◆ (환율) 7월 원/달러 환율은 우리나라 및 주요국들의 대미 무역합의 발표에 따른 약달러 완화로 상승, 8월은 美 상호관세 부과 본격화 등 상방 압력에도 박스권 등락 전망
- ◆ (금리) 7월 주요국 금리는 상승, 8월 미국 금리는 재무부 차입규모 증가, 일본은 기준금리 인상 재개 기대 등으로 상승할 전망이며, 유로존은 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 예상
- ◆ (주가) 7월 주요국 주가는 주요국 무역협정 타결 등으로 상승, 8월은 상호관세 부과 개시에도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할 전망이나 기술적 조정 가능성도 상존

## □ 7월 주요 경제·금융 동향 : 주요국 중앙은행과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

- 美 연준은 FOMC(29~30일)에서 5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(4.25~4.50%)
  - 높은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, 美 2분기 성장률 개선('25.1Q  $\Delta 0.3\% \rightarrow 2Q$  3.0%)과 낮은 실업률\* 및 2% 목표를 상회하는 물가상승률\*에 따라 기준금리 동결
  - \* 美 실업률/소비자물가 상승률(% / %, yoy) : 4.1/2.4('25.3월)  $\rightarrow$  4.2/2.3(4월)  $\rightarrow$  4.2/2.4(5월)  $\rightarrow$  4.1/2.7(6월)
  - 파월 의장은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언급하였고, 9월 금리인하 여부는 향후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신중론 고수
- 한국은행은 금통위(10일)에서 기준금리 동결 (2.50%)
  - 美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의한 성장의 하방 위협에도 불구하고, 소비자물가\* 안정세 및 가계부채\*\* 증가세 확대 등을 감안하여 기준금리 동결
  - \* 소비자물가 상승률(% , yoy) : 2.1('25.3월)  $\rightarrow$  2.1(4월)  $\rightarrow$  1.9(5월)  $\rightarrow$  2.2(6월)
  - \*\* 가계부채 증가율(% , yoy) :  $\Delta 0.9$ ('25.1월)  $\rightarrow$  4.2(2월)  $\rightarrow$  0.7(3월)  $\rightarrow$  5.3(4월)  $\rightarrow$  6.0(5월)
  - 이창용 총재는 현재 가계부채는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 수준이고, 향후 기준금리 인하 속도는 미국 관세와 금융안정 요인 등을 감안할 것이라고 언급
- BOJ는 금융정책회의(7.30~31일)에서 4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(단기금리 0.50%)
  - 美 관세정책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, 물가 상승률 전망치\*의 상향과 함께 향후 경제지표에 따른 금리인상 재개 예고
  - \* '25년/'26년 전망(% , '25.4월  $\rightarrow$  7월) : 경제성장률 0.5/0.7  $\rightarrow$  0.6/0.7, 근원물가 상승률 2.2/1.7  $\rightarrow$  2.7/1.8
- ECB는 통화정책결정회의(24일)에서 정책금리 동결 (수신금리 2.00%)
  - 물가상승률\*이 2% 목표치에 안착했다고 평가하며 기준금리 동결, 라가르드 총재는 향후 관세 등 경제전망의 리스크 요인을 감안한 기준금리 결정 시사
  - \* 유로존 소비자물가(HICP) 상승률(% , yoy) : 2.3('25.2월)  $\rightarrow$  2.2(3월)  $\rightarrow$  2.2(4월)  $\rightarrow$  1.9(5월)  $\rightarrow$  2.0(6월)

## □ '25.8월 주요 국내외 경제·금융 이벤트

- 미국, 잭슨홀 미팅(21~23일) : 견조한 고용\*과 관세發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금융 시장은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제기하는 상황\*\*으로,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드러날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정책 견해가 주목받을 전망

\* 美 비농업고용 전월차(만명) : 12.0('25.3월) → 15.8(4월) → 14.4(5월) → 14.7(6월)

\*\* 연방기금금리선물에 반영된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65.8%('25.7.30일)

- 한국, 금통위(28일) : 물가상승률이 2% 내외를 유지 중이고, 견조한 수출\*과 소비 심리\*\* 개선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완화되었으며, 美 연준의 보수적 정책 운용에 대한 부담으로 기준금리 동결 전망

\* 수출 증가율(% , yoy) : 2.2('25.1월) → 2.0(2월) → 2.1(3월) → 2.1(4월) → 1.9(5월) → 2.2(6월)

\*\* 소비자심리지수(P, 기준치=100) : 93.4('25.3월) → 93.8(4월) → 101.8(5월) → 108.7(6월) → 110.8(7월)

## □ 주요 금융지표 동향 및 전망

- (환율) 7월 원/달러 환율은 주요국들의 대미 무역합의 발표에 따른 약달러 완화로 상승, 8월은 美 상호관세 부과 본격화 등 상방 압력에도 박스권 등락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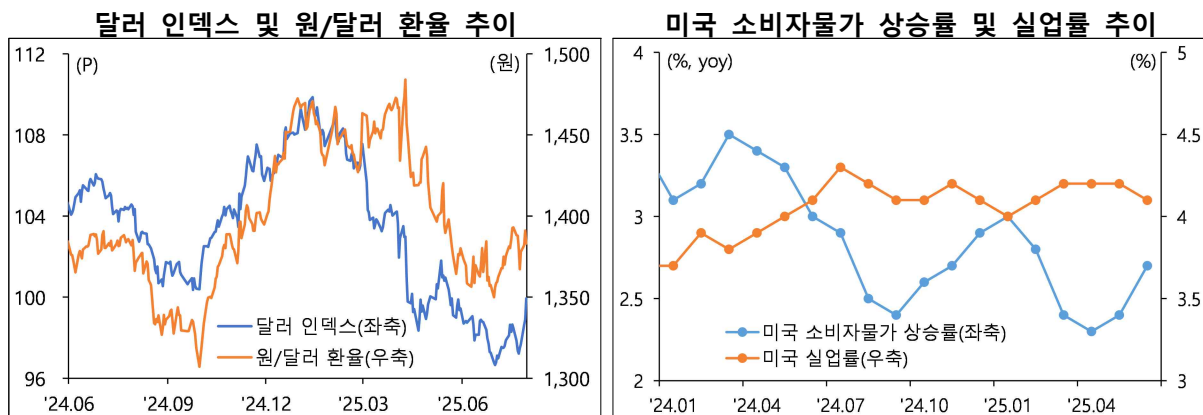
- 7월 원/달러 환율은 美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속에, 우리나라와 주요 교역국들의 대미 무역합의\* 발표에 의해 달러 약세가 완화되며 상승

\* 대미 무역합의(발표일) : 베트남(3일), 인도네시아(15일), 필리핀(22일), 일본(22일), EU(27일), 한국(30일)

- 8월 원/달러 환율은 美 상호관세 부과 본격화 등이 상방 요인이거나, 무역흑자\* 및 외국인 투자자금\*\* 유입세의 지속과 美·中 3차 무역협상에서 양국의 관세 부과 유예 연장 합의 등으로 1,400원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박스권 등락 전망

\* 무역수지(억달러) : 41.6('25.2월) → 49.2(3월) → 48.8(4월) → 48.8(4월) → 90.8(6월) → 4.7(7.1~20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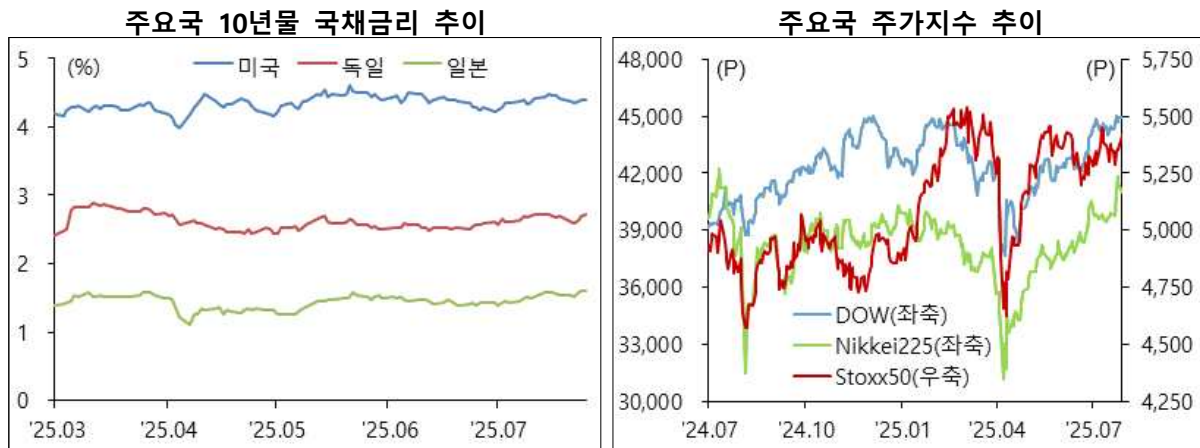
\*\*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순유입(억달러) : 17.3('25.2월) → 36.7(3월) → △17.0(4월) → 92.9(5월) → 50.8(6월)



| 구분      | '23년말   | '24년말   | '25.6월말 | '25.7월말 | 전월대비 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원/달러 환율 | 1,294.5 | 1,472.5 | 1,350.0 | 1,383.1 | +2.5% |
| 달러 인덱스  | 101.47  | 108.09  | 96.78   | 99.93   | +3.3% |

자료 : 연합인포맥스, Bloomberg

- (금리) 7월 주요국 금리는 상승, 8월 미국 금리는 재무부 차입규모 증가, 일본은 기준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으로 상승 전망, 유로존은 성장 둔화 등으로 하락 예상
  - 7월 미국 금리는 트럼프의 파월 의장 사임 압박에 의한 연준 독립성 약화 우려 등으로 상승, 일본은 참의원 선거(20일)에서 여당 패배\*에 따른 재정 악화 가능성 제기 등으로 상승, 유로존은 ECB 금리인하 중단 및 금리동결 지속 우려로 상승
    - \* 日 입헌민주당 등 야권은 소비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추진하여 日 국채 발행 증가 전망 확대
  - 8월 미국 금리는 재무부 3분기 차입규모\* 상향 조정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예상으로 상승 전망, 일본은 관세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BOJ의 금리인상 기대로 상승 예상, 유로존은 성장을 둔화('25.1Q 0.6% → 2Q 0.1%) 등을 반영하며 하락 예상
    - \* 美 재무부(29일)는 '25.3분기 차입 규모를 4,530억달러에서 증가한 1조 700억달러로 상향
- (주가) 7월 주요국 주가는 주요국 무역협정 타결 등으로 상승, 8월은 일본·EU의 대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세 지속을 전망하나 조정 가능성도 상존
  - 7월 주요국 주가는 주요국의 대미 관세협상의 도달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상승, 나스닥지수와 S&P500지수\*는 월중 역대 최고치 기록
    - \* 7.29일 종가 기준 나스닥종합지수는 21,178.6, S&P500지수는 6,389.8으로 역대 최고치 경신
  - 8월 주요국 주가는 일본·EU의 대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상승세 지속을 전망하나, 트럼프의 추가 관세 부과 및 기술적 조정 가능성도 상존



| 구분          | '23년말     | '24년말     | '25.6월말   | '25.7월말   | 전월대비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미국채 10y     | 3.897     | 4.533     | 4.228     | 4.367     | +3.4% |
| 독일채 10y     | 1.979     | 2.367     | 2.607     | 2.695     | +3.4% |
| 일본채 10y     | 0.623     | 1.101     | 1.432     | 1.568     | +9.5% |
| 다우존스        | 37,385.97 | 42,573.73 | 44,094.77 | 44,901.92 | +1.8% |
| 유로 Stoxx 50 | 4,521.47  | 4,869.28  | 5,303.24  | 5,416.62  | +2.1% |
| Nikkei 225  | 33,169.05 | 39,894.54 | 40,487.39 | 40,998.27 | +1.3% |

자료 : Bloomberg